



박정하

식인 풍습은 정말 야만적일까?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식인 풍습은 정말 야만적일까?

식인 풍습은 야만의 산물일까? 식인에 대한 마빈 해리스와 레비 스트로스의 견해를 들어보고 야만, 미개, 원시를 개념적으로 구분해보자.

학습 목표

- 야만, 미개, 원시의 개념적 구분
- 의례적 식인의 의의
- 관념론적 문화론과 유물론적 문화론 비교
- 문화 상대론적 입장의 의의
- 식인 풍습에 대한 마빈 해리스와 레비 스트로스의 견해

강사 소개

• 박정하

철학자. 칸트 철학 전공.

EBS논술연구소 부소장 역임

저서 『박정하 교수의 논술 에센스』(2007),

『학술적 글쓰기』(2007) 등

강의 보기



- 제목 : 식인 풍습은 정말 야만적일까?
- 강사 : 박정하 (철학자)
- 구성 : 24분

지식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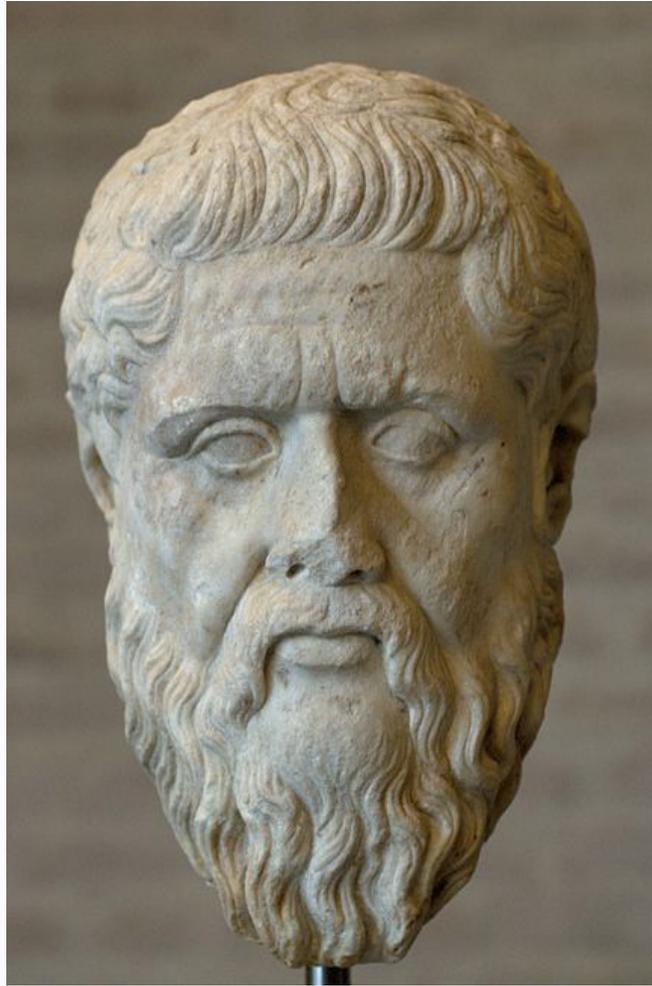


야만과 미개

‘야만’은 ‘미개’에 완전히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 나치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은 ‘야만적’이되,
‘미개한 행위’는 아니다.

지식 노트



플라톤(Plato, BC428/427~BC348/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초월적인 이데아가 존재하고, 현실은 그러한 이데아를 모방 또는 분유(methexis)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이데아론을 주장하였다.

지식 노트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1927~2001)

문화유물론을 정립한 미국의 인류학자. 문화 구조의
원인과 결과를 문화생태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대표작 『문화의 수수께끼』(1974), 『음식문
화의 수수께끼』(1985)

강의 노트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것을 통해 생겨난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은 과연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식인 풍습'하면 '미개함'을 떠올리지만, '미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조상들은 야만인이었던 걸까?

미개/ 야만/ 원시

야만'은 반도덕적이고 서구적 도덕 기준에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여기에는 '도덕적 평가 개념'이 들어가 있다.

미개'는 개발이 덜 된 상태로서, '야만'의 한 원인일 수 있다.

“야만'은 '미개'에 완전히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 나치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은 ‘야만적’이되, ‘미개한 행위’는 아니다.”

야만

인간의 삶의 가치와 자아 실현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 → 야만 ↔ 문화

미개’는 ‘야만’보다 가치 판단이 덜한 개념

원시’는 (‘미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primitive로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야만’과 달리 중립적인 사실 판단을 의미

- 사실 판단: 어떤 현상에 대해 평가 없이 기술하는 것
- 가치 판단: 어떤 현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개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의 여러 현상을 그것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미개, 야만, 원시는 20세기 이전의 서구 전통에선 혼재되어 사유되었지만, 이후 문화 상대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독자적인 개념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은 (원시나 미개가 아닌) 가치 판단이 가능한 ‘야만적 행위’인가?

식인 풍습이 야만적 행위인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룰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식인 행위는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 행위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풍습, 규범과 같은 이른바 문화적 현상들이 ‘문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reasonable)’** 것이어야 한다.

다른 인간의 행동, 문화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릴 때 토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의례적(ritual) 식인, 즉 ‘종교 예식화된 식인’은 식인 풍습에 관한 합리적 근거로 자주 제시된다.

의례적 식인 풍습

부족의 사고방식과 및 생활 방식을 전승하는 의식 행위로서,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을 먹는다.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 자체를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

실제로, 인간이 만든 문화는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인간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례적 식인 풍습의 의미

식인 행위를 통해 그 조상을 기억하고 숭배하며, 죽은 이가 산 사람 가운데 살아 있게 함으로써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 하는 것

심장은 용기, 뇌는 지혜, 근육은 힘 등 각자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에 해당하는 내장을 나누어 먹었다.

의례적 식인은 식인 풍습 자체만이 아니라 ‘고기를 나누어 먹는 행위’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의례적 식인은 한 조상의 시체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동질감을 부여하고 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구실을 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개개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아를 나누어 공유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덴티티(identity)는 ‘같은 것을 나누어 가짐’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동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

의례적 식인 풍습에선 한 사람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그 부족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 문화란 상대적임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이다.

죽은 사람을 먹는 의례적 식인과 달리, 고대의 많은 식인 풍습은 살아 있는 사람, 특히 전쟁 포로를 잡아먹었다. 산 사람을 먹는 행위 역시 과연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까?

식인 풍습을 설명하는 방식

① 문화관념론

식인 풍습은 고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눈에 띄게 사라졌다.

고대 국가에서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통치 이념이 필요했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통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식인 행위는 금지되었던 것

그러나, 마빈 해리스에 따르면 고대 국가가 들어서면서 식인 풍습이 사라진 것은 생산력 발전과 연관이 있다.

② 문화유물론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전쟁 포로를 살려놓을 경우 자신의 생존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죽여서 먹었다.

고대 국가 성립 이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산력이 발전하자, 전쟁 포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더욱 이익이었기에 식인 풍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생산력 발전 이전의 포로는 전쟁에서 일종의 도시락 역할을 했다.

포로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 의식을 둔화시켜 관리를 쉽게 만드는 부과적인 효과도 제공했다.

마빈 해리스는 고대 국가가 왜 전쟁 포로를 먹지 않고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을 제공했다.

‘관념론적 문화론’과 ‘유물론적 문화론’은 방식은 다를지언정, 문화 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려는 접근들이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08~2009)

언어학 모델을 도입하여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틀을 확립한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브라질에 체류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집필한 저서 『슬픈 열대』(1955)를 통해 문명과 야만 개념을 비판했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남미 원시 부족사회에서 식인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출’의 의미를 지닌다. 그 부족에서 두려운 자를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축출 또는 중화시키는(neutralize) 과정이 바로 ‘식인 행위’였던 것

현대 사회의 수형 제도든, 원시 부족사회의 식인 행위든 사실상 많은 문화권들은 내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어느 한 문화는 옳고 다른 문화는 야만적이라 볼 수 없으며, ‘상대적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관념론적 문화론

문화를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방식

유물론적 문화론

문화를 인간의 물질적인 요소(자연환경에 대한 대응 수단, 노동 등)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방식

‘관념론적 문화론’은 식인 풍습이 없어진 현상을 종교적 가치관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반면, 유물론적 문화론은 물질적 요소의 변화를 토대로 설명한다.

‘관념론적 문화론’과 ‘유물론적 문화론’은 문화상대론의 대표적인 두 입장이다.

현대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관념론적 문화론’은 인간 욕구 및 욕망과 관련시켜 해석하지만, ‘유물론적 문화론’은 그러한 욕망이 발생하게 된 물질적 조건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학습 요약

-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 풍습은 ‘야만적 행위’라 치부되어 왔으나, 문화상대론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 의례적 식인 풍습은 조상의 시신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부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접촉제 구실을 했다.
- ‘관념론적 문화론’은 문화를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반면, ‘유물론적 문화론’은 물질적 요소와 연관해서 설명한다.
- 레비스트로스는 원시 부족의 식인 풍습에서 오늘날의 수형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발견하였다.

인문 퀴즈

1. 개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의 여러 현상을 그것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의미하는 말은?

- (1) 문화 사대주의(cultural toadyism)
- (2) 문화 보편주의(cultural universalism)
- (3) 자문화 중심주의 (ethnocentrism)
- (4)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2. 언어학 모델을 도입하여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 틀을 확립한 프랑스 문화인류학자로, 브라질에 체류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집필한 저서 『슬픈 열대』(1955)를 통해 문명과 야만 개념을 비판한 인물로 올바른 것은?

- (1) 자크 라캉 (Jacques Lacan)
- (2)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 (3)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 (4) 조르주 바타유 (Georges Bataille)

인문 퀴즈

3. 다음 두 인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대립되는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답은?

영수: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데 정말 신기한 문화인 것 같아.

철수: 중동 지방은 기후가 더워서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쉽게 상하니까 그런 문화가 생겼겠지.

영수: 글썄, 내 생각에 이슬람교에 대한 중동 사람들의 강한 신앙심이 원인인 것 같은데. 『코란』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한 구절 때문에 그들의 음식문화를 그렇게 바뀐 거 아닐까?

철수: 결국 그러한 종교적 관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지리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봐. 척박한 사막에서 풀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곡식을 먹는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겠지. 게다가 유목생활을 하는 중동 사람들에게 젖을 생산하지 못하는 돼지는 더욱이 필요하지 않은 가축이잖아?

영수: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걸 보면, 결국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들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

인문 퀴즈

- (1) 사대주의적 문화론 vs 자문화 중심주의
- (2) 문화 상대주의 vs 문화 보편주의
- (3) 유물론적 문화론 vs 관념론적 문화론
- (4) 보수적 문화주의 vs 진보적 문화주의

정답

1. (4) 2.(2) 3.(3)

3. 영수는 종교와 같은 문화의 관념적인 면을, 철수는 기후, 지리 등 유물론적인 면을 내세워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File:Cannibals.23232.jpg>

지식 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Auschwitz_Liberated_January_1945.jpg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Head_Platon_Glyptothek_Munich_548.jpg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MarvinHarris.jpg>

식인 풍습은 정말 야만적일까?

강사: 박정하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